

# 경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오늘 구속영장 신청

### 베트남서 도피생활하다 호치민서 붙잡혀 국내 송환 대구 도착후 수성보건소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격리 유치장 이동시켜 범행동기·조력자 등 수사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 이어지고 있어

경찰은 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후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게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인 A씨는 6일 오전 6시23분께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전날 출국,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다.  
대구에 도착한 A씨는 수성보건소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오후 2시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대구지역 내 경찰서 격리 유치장에 A씨를 옮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조력자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붙잡혔다.  
국내 송환은 현지 검거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A씨는 지난 3월개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1기 운영자 도피 이후 폐쇄됐다가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상대 조사를 이어가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전망이다.  
신봉우기자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충북경찰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6일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충북 경찰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성희롱 사건 및 위계에 의한 2차 가해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 조영대 신부 "전두환 구형량 아쉽지만 유죄 판결 중요"

### 전씨 측 변호사 "입장 없다...재판부 판단에 승복할 것"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재판 고소인이자 고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전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구형량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최고형인 2년 형을 구형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조 신부는 전씨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선 "장시간 퀘번으로 이뤄진 변호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신부는 "재판장이 변론 내용을 잘 판단해 선고 공판 때 좋은 결과를 내주리라 믿는다"며 "판결을 계기로 전씨가 반성하고,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홀가분하다.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주장이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조비오 신부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이후 2년 5개월간 18차례에 걸쳐 열린 전씨의 형사재판은 이날 결심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오유나기자

## 데이트폭력, 4년간 4만3000명 검거

### 폭행·상해 3만 1304명...매일 26명씩 발생

최근 4년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9566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행·상해 사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 지역 검거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국 데이트폭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데이트폭력 검

거 인원은 모두 4만3046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3만1304명, 체포·감금·협박 4797명, 성폭력 571명, 살인미수 144명, 살인 69명 등이 다. 경범죄 등 기타로는 6161명이 붙잡혔다.  
소 의원은 "이는 연간 9566명,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며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검거 인원은 9858명에서 4273명으로 감

소했지만 대전·대구 등 지역은 전국적 감소 추세에도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 규모는 서울이 1만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010명, 인천 3758명, 부산 2524명, 경남 2433명 순이었다.  
지역과 범죄 유형을 함께 보면 폭행·상해는 서울·경기·인천, 감금·협박은 경기·서울·인천, 살인은 서울·경기·경남, 살인미수는 경기·서울·경남, 성폭력은 서울·경기·대전 등에서 많았다.  
정승호기자

## 광주·전남서 우범자 중 15%는 어딘지도 모른다

### 우범자 1362명 중 204명 소재 불명... "상습 범죄 막아야"

광주·전남에서 재범 우려가 높은 전과자 중 15% 가량은 소재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범자는 광주

616명, 전남 746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는 광주 100명, 전남 104명에 이른다. 광주·전남 지역 내 우범자 1362명 중 14.9%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우범자 1만7313명 중 2839명(16.3%)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범자는 살인·조직폭력·강도·절도·마약·방화 등 주요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자를 가리킨다. 당초 성폭력 사범도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우범자 통계에서 분리됐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